

江華마니산 一帶, 國立公園 指定해야

民族 魂이 담긴 聖山,

景觀·遺蹟 갖춘 山 教育場

편집자주 : 다음의 글은 섬 전체가 수려한 경관과 유적지로서 산교육장이며 마땅히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인데 12월 13일자 중앙일보 「나의 提言」란에 실린 것을 연구자료로 실어본다. 사적국립공원인 慶州일원과 성격이 유사한 점에 유의해 볼만하다.

성화로 시작해서 성화로 끝나는 올림픽은 체화지를 결코 옮기는 법이 없다. 성화가 깊은 뜻을 갖는 것도 바로 체화지가 유서깊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담긴 체화지가 86아시안게임 때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서려있는 경기도 강화군 마니산이어야 했던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30여년간 성화 체화지로서의 전통을 지닌 마니산 대신 당시 경주화랑교육원 앞뜰로 체화지가 옮겨진 일을 두고 뜻있는 국내인사들과 강화군민들은 껍 유감으로 여긴바 있다.

더구나 당시 언론매체들은 우리나라 역사는 신라까지가 전부인 양 신라의 도읍인 경주만을 찬양 일색으로한 나머지 전통을 무시한 체화지 변경에 대해서는 지적없이 지나쳐 큰 아쉬움을 남겼다.

앞으로 성화 체화지는 강화도 마니산 이외로 옮겨져서는 안된다. 차체에 마니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국립공원으로 손색없는 경관과 특히 역사의식이 깊게 새겨진 곳이기때 더욱 그렇다.

첫째, 마니산은 한민족의 뿌리가 되는 명산중의

명산이다.

둘째, 이미 고려때 마니·진강·정족산을 국립목장으로 지정하여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무예를 닦게 하고 민족정기를 키워나가게 할만큼 성산으로 여겨진 바가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58년 제36회 전국체전때부터 시작된 성화를 최초로 체화한 곳으로 지금까지 30여년간 체화지로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넷째, 마니산은 우리가 더욱 성스럽게 보전하고 관리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해선 도립공원 정도의 취급은 소홀하며 마땅히 국립공원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편집자주 : 마니산은 도립공원이 아니라 현재 국민관광지로 지정되고 있음.)

다섯째, 강화도는 전체가 국립공원으로 손색이 없을만큼 많은 유적이 있다. 마니·정족·진강·덕정·혈구·고려·해명·별립산 등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슬한 유적지가 곳곳에 흩어져 있어 역사의 산교육장이 될 수 있다. 부서진 기와 한쪽에도 민족전체의 숨결이 서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강화도는 관광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에서 충분히 국립공원으로 지정받을 여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강화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비단 강화군민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강화도를 더욱 가깝게 찾게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역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새삼 민족애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火山石에서 혁명적新素材를 嶺大美大 嚴相文교수 개발, 用途無限大

나무 · 시멘트 · 鐵의

弱點 보완

화산으로 생성된 濟州道와 鬱陵島의 화산석과 화산회토를 이용, 초경량·내열·방음·무부패·내마모 등의 특질을 갖춘 새로운 소재가 개발돼 제 2의 산업혁명이라는 성급한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이 신소재는 현대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소재의 약점을 모두 배제시킨 물질로 미래산업의 변혁은 물론 예술에서도 「부상(浮上)예술」물질로 활용할 수 있어 4차원의 조형물을 가능케할 전망이다.

嶺南大 美大 嚴相文교수(44)가 10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뉴 세라믹」이란 이름의 이 신소재는 지난 7월과 8월 물에 뜨는 경량세라믹 조성물질과 경량세라믹 내열자기류의 제조법으로 각각 특허를 받아놓고 있으며 과학기술처에 제품연구를 위한 시설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

嚴교수가 개발한 이 신소재물질은 같은 火山國인 日本은 물론 다른 선진국에서도 아직 개발보고가 없는만큼 세계에서 처음 개발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이 소재가 실용화될 경우 경제성은 가위 폭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嚴교수가 지난 77년 中央아메리카의 코스타리카에 있는 도자기 관련 국립연구소에서 도자기에 쓰이는 천연유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착안, 이 소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 신소재 물질은 濟州道와 鬱陵島의 화산석과 화산회토가 화산활동에 의해 섭씨 1천~1천3 백도 이상에서 자연적으로 소각돼 만들어진 것으로 이 천연재료를 사용하면 지금까지 세라믹공정의 1차 소성(燒成) 및 유약이 생략되기 때문에 막대한 경

비와 시간이 절약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연구가 시작됐다는 것.

이 물질의 특성은 지금까지의 산업소재인 나무의 부패성과 불에 약한점, 철의 무겁고 녹스는 약점, 시멘트의 무겁고 산에 약한점 등의 결점을 모두 보완한 것으로 ▲불에 타지않고 ▲썩지도 않으며 ▲녹이 슬지 않고 ▲마모가 안되고 ▲방음성이 강하고 ▲내열성이고 ▲전기에 대한 불양도체이며 ▲방온 ▲방습 ▲무변질 등 10가지 이상의 세라믹 특성을 갖추면서 비중 0.6~0.7로 나무와 같이 물에 뜨는 초경량이다.

또 색상도 물질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갈색이나 카본색 등 다양하게 창출할 수 있다.

이 신물질의 활용범위는 보온·단열재·방음재·보도타일·내외장용타일·세라믹·자갈 및 시멘트·세라믹모래·각종 토목건축자재·초정밀연마자료·전자·전기·정보기기 제품의 외부성형물 등과 함께 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의 운송구조물·잠수용기구·방화·소방기류·물에 뜨는 공예품·수상건축물·가구·기계용내열자기 등 활용분야는 매우 넓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 소재로 면도날을 만들 경우 녹이 슬지 않고 마모가 안되므로 날한개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嚴교수는 「이번 개발된 신소재물질은 우선 원료가 한국내에서 충분히 공급되고 세계적으로 보고된바 없는 만큼 산업혁명적 물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정부가 실제 제품연구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수년내에 실용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嚴교수는 日本 통상성조사 등을 근거로 들며 2000년을 기점으로 이같은 신소재 시장규모는 원화로 32조 4 천억원이나 되며 이로인해 파생되는 시장규모는 약 3백20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12. 14. 中央日報)